

세계적 푸르른 양진디와 함께...

**DYNASTY**  
HAMPYEONG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국정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 '2006 K-리그 대상' 시상

염기훈 '신인상'  
김두현 'MVP'

김두현(24·성남 일화)이 2006년 프로축구 K-리그 그라운드를 빛낸 최고의 별로 뽑혔다.

김두현은 20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페이퍼테이너뮤지엄에서 열린 '2006 삼성 하우젠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남을 K-리그 통산 일곱 번째 우승으로 이끈 김두현은 MVP 투표 개표 결과 전체 71표 가운데 모두 66표를 얻어 단 3표에 그친 이관우(수원)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며 생애 첫 MVP 수상의 영예와 함께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투표는 국내 축구담당 기자단이 했고 이날 현장에서 즉석 개표가 이뤄졌다.

성남의 공격형 미드필더 김두현은 올해 33경기(컵대회 포함)에 출전해 8득점과 4도움을 기록했다. 2001년 데뷔한 프로 6년차 김두현은 정규리그 전·후기 통합상위 1위와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성남의 공격을 시즌 내내 진두 지휘했다.

또 올해 K-리그 최고의 새내기에는 호남대 출신 염기훈(23·전북 현대)이 뽑혔다.

염기훈은 신인상 개표 결과 53표를 얻어 장남석(대구·15표)을 제치고 신인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다음은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대상 각 부문 수상자.

- ▲최우수선수상 = 김두현(성남) ▲신인상 = 염기훈(전북) ▲특별상 = 김병지(서울), 최은성(대전), 이정래(경남) ▲득점상 = 컵대회 최성국(울산), 정규리그 우성용(성남) ▲심판상 = 최우수 주심 이영철 심판, 최우수 부심 안상기 심판 ▲감독상 = 김학범 성남 감독 ▲베스트11 = GK 박호진(수원), DF 마토(수원), 김영철(성남), 장학영(성남), 최진철(전북), MF 김두현(성남), 이관우(수원), 백지훈(수원), 보보(부산), FW 우성용(성남), 김은중(서울) ▲페어플레이상 = 부산 아이파크



〈김두현〉



〈염기훈〉

■ '신인상' 염기훈 누구

호남대 출신 미드필더  
부상 딛고 '태극마크'

호남대 출신 미드필더 염기훈(23·전북 현대)이 올 시즌 최고 '무기' 자리에 올랐다.

20일 '2006 삼성 하우젠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인상'에 뽑힌 염기훈은 올 시즌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포함해 31경기에서 7골 5도움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새내기로 떠올랐다.

염기훈은 시즌 내내 그라운드 안에서는 날렵하면서도 투지가 넘쳤고 그라운드 밖에서는 순박하고 꾸밈없는 안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염기훈은 특히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소속팀 전북에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안겨줬고, 시리아 알카라마와 결승 1차전에서는 선제 결승골을 뽑아 전북을 아시아 최강 클럽에 등극시켰다.

지난 7월 머리에 커다란 혹터를 남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2개월만에 부활의 나래를 활짝 펴며 국가대표와 2006 도하 아시안게임대표로도 발탁됐다.

최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국축구의 새로운 대두물로 떠오르고 있는 염기훈은 논산중과 강경고를 거치는 동안 '무명선수'나 다름없었다.

충남 논산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성덕초등학교 6학년때 근대 2종(수영 육상) 선수로 대회 우승을 하기도 했으나, 중학교 1학년때 뒤늦게 축구의 매력에 빠져 전업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빈혈이 심해 축구를 그만둘 생각을 하기도 했다.

고교 졸업 후에도 불려오는 학교가 없어 호남대에 입학 테스트를 받고 어렵게 진학하는 아픔도 겪었다.

염기훈은 당연히 아마추어 시절 청소년대표팀이나 올림픽 대표팀 발탁 등 '엘리트 코스'도 밟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고, 프로무대에서 만개한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이번 도하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중 세계청소년선수권(20세 이하)이나 올림픽 본선 출전 경험이 없는 유일한 선수도 그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탈바꿈  
지역밀착형 구단으로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지역 밀착형 구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전남은 21일 오후 6시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백운대에서 공운찬 사장(사진), 김종대 단장 등 임직원 및 허정무 감독을 비롯해 선수단 전원과 이상용 광양시장, 허남석 광양제철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단 비전 선포식'을 갖고 유소년 클럽 강화 및 광양만권 10개 시·군 조기축구 대회 연중 리그 개최 등 지역 축구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공운찬

그랩을 마련해 지역 축계에 적극 참가하고, 지역 사회 복지 시설 봉사활동과 코칭스태프 및 선수들의 '1일 체육교사' 운영 등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구단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또한 광양시, 지역기업 등과 연계해

■ 오늘 '축구단 비전 선포'

전남은 유소년 클럽 강화 방안으로 2007시즌부터 선진 클럽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수 선수를 육성·발굴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 클럽팀을 지원하고 지역내 고교팀과 합동 훈련 등을 통해 우수 선수들이 빠른 기간내에 프로 리그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소년 클럽 육성 우수선수 4명 입단

10개 시·군 조기축구 연중 리그 운영

전남은 또 매년 유소년 클럽에서 육성한 우수 선수 4명을 입단시키는 한편 국가대표급 선수 육성에도 주력키로 했다.

여기에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유소년 클럽 및 지역연고 선수의 비중을 오는 2010년부터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전남은 특히 광양만권 10개 시·군이 참가하는 조기축구대회를 연중리그로 운영, 지역 축구부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팬 사인회 등 다채로운 프로

구단 이미지 향상 및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의 기호조건과 편리한 인프라 등 장점을 부각시켜 전지훈련 팀 유치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공운찬 전남 드래곤즈 사장은 "선진적인 구단 운영을 통해 클럽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연고제를 정착시켜 명문구단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발전하는 구단 이미지 정착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충호기자 chkim@kwangju.co.kr



전남 김영광 울산행

“아시안컵 꼭 우승”

베어벡 감독 자신

세부 조건 조율 중

국가대표 골키퍼 '리틀칸' 김영광(23·전남 드래곤즈·사진)이 전남을 떠나 울산 현대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과 전남 구단은 김영광의 이적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끝내고 현재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시즌 종료 후 외국인 선수 보장을 위해 브라질에 건너갔다 지난 주 귀국한 울산 김경남 감독은 20일 "구단 실무진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남에 공격수 레안드롱을 임대로 내주고, 전남에서 김영광을 데려오는 것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프로축구연맹 이적료 산출 규정상 20억원대에 달하는 김영광의 몸값 중 일부를 레안드롱의 임대료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김종대 전남 단장은 "아직 최종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열을 전쯤부터 울산 구단과 김영광의 이적에 대한 협상을 해왔다"며 김영광의 울산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 김영광 본인과 울산간의 계약과

정이 남아 있다. 이때 연봉과 계약 기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광은 국가대표팀에서는 이운재의 뒤를 이어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지만 소속팀에서는 영동군에게 밀려 경기 출전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K-리그 및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우승을 놓쳐 내년 시즌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울산로서는 김영광의 영입이 전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컵 우승으로 내년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을 따내 공격수 전력 보강이 절실해진 전남도 김영광의 이적으로 자급력을 확보하면서 검증받은 용병 공격수 레안드롱까지 임대받을 수 있게 돼 결코 밀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편 김영광은 최근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해 휴가를 보내고 있다. 오는 25일 홍명보 장학재단이 주최하는 '2006 푸마 자선축구 경기' 출전이 예정된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 아시안컵 본선 D조 추첨 분석 엇갈려

‘죽음의 조’ vs ‘무난하다’

“사우디·바레인 강적”

B조를 '힘든 조'로 평가했다. 호주와 일본이 어려운 과제를 안았다는 주석을 달았다.

B조를 죽음의 조로 보는 시각에는 카타르가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점이 작용한 것 같다. 반면 국내 팬들 중에는 한국이 일본 대신 B조에 들어가는 게 좋았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가

“충분히 8강 간다”

맞붙는 C조가 가장 어렵다는 평도 있다. 한국은 1984년 싱가포르 대회 이후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적은 없다.

1992년 일본 대회 때는 아예 본선에 오르지 못했고 그 외에는 8강 또는 4강 토너먼트에 안착했다.

한국이 4회 연속 '난적' 이란을 8강에서 만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한국은 1996년 UAE 대회, 2000년 레바

논 대회, 2004년 중국 대회에서 세 번 연속 이란과 8강 대결을 펼쳤고 성적표는 2-6 참패, 2-1 승리, 3-4 패배로 밀렸다.

한국이 D조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C조 1위 또는 2위팀과 맞붙게 돼 이란과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47년만에 아시안컵축구대회 우승을 노리는 한국은 내년 7월11일 사우디아라비아와 D조에서 가장 강팀으로 평가되는 사우디와 첫 판을 치른 다음 사나흘 간격으로 7월15일 바레인, 7월18일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2, 3차전을 갖는다. 경기 장소는 모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D조에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8강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첫 경기 가 조 1위 결정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D조 1위로 8강에 진출하면 7월 22일 C조 2위와 4강 티켓을 다투고 조 2위로 올라가면 같은 날 C조 1위와 맞붙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